

### 【 제4차 이사회 열려 종란폐기 거부 회원 조건부 복권키로 】

지난해 11월, 12월 2달간에 걸쳐 수급안정을 위해 종란폐기 당시 이를 거부하다 후에 종란폐기에 동참하여 자동 제명됐던 업체에 대하여 이사회는 협회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일부 조건을 달아 복권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3월 17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종란폐기 거부 제명회원에 대한 처리(안)를 상정시켜 조건을 달아 복권키로 하고 조건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이날 화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 향후 협회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과 종란폐기에 동참한 근거를 문서로 보내왔고 주원산오리는 수급안정을 위해 9월과 10월 증오리 9천2백40수를 사전 도태하여 입추수량을 7만수에서 3만5천수까지 줄여 협회 수급안정 사업 추진이전에 이미 자체 조절하였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주원산오리는 2차 종란 폐기에 동참하여 8만6천4백개의 종란을 폐기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 이사들은 원칙이 무너지면 협회운영이 어려워 진다며 복권 반대의 목소리와 수급안정을 위한 증오리 쿼터제 시행등 협회 추진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등 조건을 달아 복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찬반투표를 거쳐 조건부 복권이 가결됐다.

또 의무자조금 시행 이전에 소비촉진등 협회추진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임의자조금 사업추진안을 상정시켜 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임의자조금 관리운영규정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새끼오리 생산실적 및 도축계열화업체의 도축실적 등에 대한 자료 공표에 관한 안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해당관련업계의 사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 사업권이 방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키로 했다.

### 【 제4차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 노압도태 및 4일부터 가격인하키로 】

오리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새로 산란하는 오리를 보유하고 있는 부화장은 노압 증오리를 자율적으로 도태하고 새끼오리 가격은 4월4일부터 1백원을 인하키로 협의됐다.

본회 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계열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를 열어 수급안정을 위해 새끼오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계열유통업계의 요구로 이뤄진 가격조절 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해당 계열유통업계는 현재와 같이 새끼오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도태되어야 할 증오리가 도태되지 않고 계속 종란생산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 후 육용오리 생산과잉의 원인이 된다고 새끼오리 가격 인하에 의해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화업계는 부화장 대부분이 사육업계가 분양해 달라는 새끼오리 물량을 대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인하 불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전되던 조절위원회는 계열유통업계의 생산과잉 우려에 동감하고 부화업계 스스로 노압을 도태해 나가고 새끼오리 가격은 4월 4

일 1백원을 인하하며 그 다음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 【농협, 화인코리아 경매 취하】

농협중앙회가 화인코리아의 핵심영업 자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의 화의인가 절차에 숨통이 트였다.

농협과 화인코리아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화인코리아가 농협에 대한 부채를 5년거치 8년 분할 상환기로 하고 채무재조정 협약서에 정식 서명했다.

화인코리아는 그동안 근저당권자인 농협이 지난해 5월 19일 나주 제1·2공장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화의조건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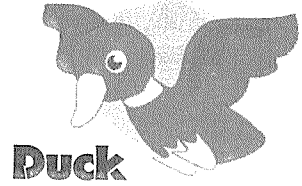
나재석 화인코리아 이사는 “이번 농협의 경매취하로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회사 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005-3-16)

## 【농협 축산유통부, 환경정화운동 실시】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는 지난 19일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범국민 확산을 위해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축산유통부 전직원은 ‘농촌사랑·자연사랑 농협홍보단’의 어깨 띠를 두르고 등산로 주변 오물 등을 수거하는 한편 등산객을 대상으로 농촌사랑예금과 농촌사랑 100만 회원 가입운동을 홍보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강두승 부장은 “새농촌 새농협운동이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이해가 전제돼야 하며 농협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이같은 노력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범국민의 운동으로 승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계협회장 최준구씨, 계육협회장에 한형석씨】

대한양계협회장과 한국계육협회장에 각각 최준구, 한형석 씨가 선출되는 등 양계관련 협회의 차기 임원진 구성이 지난주 완료됐다.

최준구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전체 171명의 대의원 가운데 131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74표를 얻어 선출됐다. 또 육계분과위원장에 강용식씨, 증계부화분과위원장에 이연중씨, 채란분과위원장에 김선웅 씨가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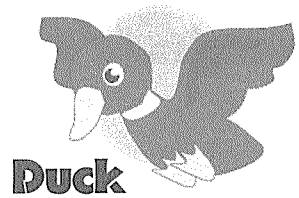
한국계육협회도 지난 24일 경기 성남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협회장에 한형석 마니커 대표를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김인식 체리부로 대표, 홍응수 한강CM대표가 선임됐다.

**[ 김만섭 사장, 건대 농축경영대학원 입학 ]**

모란식품 김만섭 사장이 지난 3월 건국대학교 농축경영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입학했다. 김사장은 1년간 건대 농축경영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모란식품은 지난 3일 오리고기 수출을 위해 방한한 일본 바이어와 상담과 지난 8일부터 10일 까지 일본 식품박람회 참가하여 일본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일 가금육 수출개개와 동시에 오리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社団法人  
韓國모리協會

신

상

품

소

개

**학습용 디지털 부화기**  
-오토일렉스

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부화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가전소품제조업체인 오토일렉스는 지난 28일 유정란을 넣으면 부화과정을 지켜 볼 수 있는 학습용 디지털 부화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부화기는 오리, 닭, 메추리 등 각종 조류의 유정란을 넣고 17-28일간 기다리면 부화되며 한번에 3개의 알을 입란하고 부화기내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 부화되는 과정을 외부에서 지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알의 종류에 따라 부화과정 버튼을 설정하면 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격은 고급형이 8만8천원, 일반형은 6만8천원이다.  
(연락처 080-018-0007)